챗지피티 과연 ‘득’일까 ‘실’일까

20251617

김준성

최근 AI 사이트 일명 챗지피티(Chat GPT)를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경험하고있다. 현재, 가장 유명한 AI 사이트가 챗지피티일 뿐, 챗지피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도 수십개의 AI 사이트가 존재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결단코, 현 10~20대 사람들은 무조건 AI 사이트를 경험하고 사용해 봤다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엄청난 AI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주제에서는 많은 생성형 AI 사이트 중 챗지피티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챗지피티, 글쓴이가 처음 써보고 신세계라 느꼈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최근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그림체로 일반사진을 바꿔주는 유행이 일어나면서 생성형 AI 사이트인 챗지피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화두에 올라왔다.

위에서 소개한 지브리 필터 변환 문제 대한 외부 의견으로는 크게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다. 지브리 필터 변환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진에서 지브리 필터를 적용시켜 줌으로써 지브리 특유의 감성적인 스타일을 신속하게 재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브리를 좋아하는 팬층들에게는 엄청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를 본인의 일상 사진에 적용할 수 있다니 얼마나 혁신적인 것인가. 하지만, 찬성 의견과 상대되는 입장인 반대의견도 당연히 존재한다. 지브리 필터 변환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는 창작자 및 지브리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고유한 영역인데 이것을, 챗지피티를 사용하여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위 두 상반되는 입장 중에서 글쓴이의 의견은 챗지피티를 사용하여 지브리 필터로 변환하는 행동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된 찬성 의견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모두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 과연 본인 개인의 잠깐의 행복 및 즐거움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과연 맞은 것일까? 굳이 남의 창작물을 모방하면서까지 단순한 유행을 하나 때문에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지브리 필터로 바꿔 달라고 챗지피티에 물어보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음과 동시에 이 규율을 어기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과 동일시 하므로, 진실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위 주장에 대한 논거로는 글쓴이의 경험과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의견, 두 가지를 사용하여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 글쓴이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일상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시키는 것이 한국에서 유행이었을 때 발 빠르게 나의 사진을 지브리 필터로 변환하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해본 적이 있다. 챗지피티가 나의 일상적인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 준 것을 보았을 때는 신세계라고 느꼈었다. 또한, 고작 몇 분 만에 지브리 그림체로 나를 변환시켜 주니 이러한 유행에 대해 흥미로웠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브리 영화의 원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러한 챗지피티를 사용한 지브리 스타일 변환 유행에 대하여 달갑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2016년 일본 엔에이치케이(NHK)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내 작업에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이것이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강한 반감을 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뉴스를 접한 후에 나는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유행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반감을 품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사진을 챗지피티에게 보내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분밖에 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브리는 손 그림을 고집하는 만큼 4초짜리 장면을 그리는데 1년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즉, 영화 한 편을 만드는 데 수년이 걸리는 과정을 단 몇 분 만에 챗지피티를 사용하여 흉내 내고 모방하는 것은 창작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브리 스타일 변환이 유행인 만큼, 많은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서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게시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현재 오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언급된 거래 플랫폼에서 AI 플랫폼을 통해 창작된 그림 판매를 금지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하지만, AI가 생성한 이미지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지브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 지브리 특유의 그림체를 창작한 창작자의 저작권을 명백하고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스튜디오 지브리가 애니메이션 제작자인 만큼 다른 제작사가 이 유행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피스 애니메이션 감독인 이시타니 메구미는 트위터에 지브리 스타일 유행에 대하여 “지브리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게시물을 업로드 하였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라고 말을 덧붙이며 지브리 스타일 유행에 대해 깊은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 위에 언급된 특정 스튜디오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 되어있다. 따라서, 위 문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AI 생성 능력을 제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생성형 AI 사이트들은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생성형 AI 사이트들은 어플을 다운받거나,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 면에서도 뛰어나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타인의 창작물과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의 일상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행동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브리의 원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수년간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작품을, 챗지피티를 사용함으로써 단 몇 분 만에 모방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창작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AI 기술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이지, 남의 것을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고 비전이 있으며, 발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쟁점도 고려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